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2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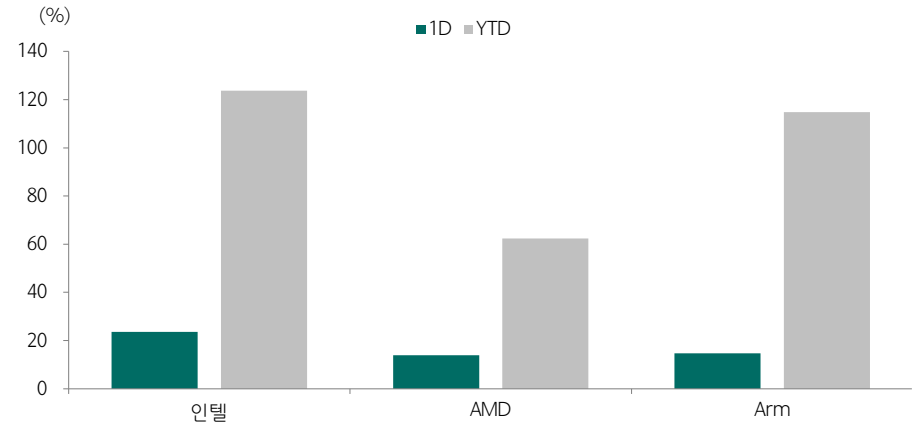
CPU가 이제야 관심을 받는군요

AMD와 Arm을 더 선호합니다

- AI가 학습에서 추론과 에이전틱 인공지능으로 확산될수록 CPU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인텔의 실적 발표 덕분에 CPU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INTC +23.6%, AMD +13.9%, Arm +14.8%). 인텔 덕분에 CPU가 부각됐지만, 그 수혜가 곧바로 인텔로 간다고 보긴 어렵다. 전통 데이터센터의 AI화에선 AMD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AI 추론용 데이터센터에선 Arm 기반의 CPU가 더 빠르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인텔의 단기 주가 흐름은 턴어라운드 기대감 덕분에 좋을 것으로 기대하나, 장기 구조적 측면에선 AMD와 Arm을 더 선호한다.
-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축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할 것이다. 학습 단계에선 GPU와 HBM, 고속 네트워킹이 중요한 병목이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장시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병렬 연산 성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추론 단계에선 구조가 달라진다. 사용자 요청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모델 선택, 라우팅, 검색, 데이터베이스 조회, 툴 호출, 응답 후처리가 반복된다. 에이전틱 AI로 갈수록 여러 모델과 도구를 조율해야 한다. GPU 연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CPU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 추론시장에서 CPU의 역할은 중요하다. AI 시스템의 교통정리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요청을 어떤 처리 경로로 보낼지 결정한다. GPU에 작업을 배정하거나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벡터 DB 조회 등을 처리하기도 한다. 여러 에이전트와 툴 호출을 조율하고 네트워크 · 스토리지 · 메모리 등의 이동을 관리한다. 유휴 GPU가 없도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데이터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추론이 커질수록 GPU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CPU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 우리는 연간전망 자료를 통해 CPU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미 주장했다. AMD의 FY 3Q25 실적 발표에서 얻은 힌트를 근거로 들었다. AMD는 데이터센터 프로세서 수요의 세가지 축을 AI 용 신규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AI용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통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꼽았다. 시장참여자들이 CPU보다 GPU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AMD의 CPU 성능 및 서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4월 미주 Pick하나에선 Arm을 추천했는데,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본격 진입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다. 인텔의 실적으로 CPU가 부각되면 AMD와 Arm에도 호재다.
- AI 추론 수요는 단일한 형태로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전통 데이터센터가 AI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와 GPU 및 가속기를 중심으로 새로 설계되는 대규모 AI 추론 데이터센터 등이다. 전통 데이터센터는 CPU가 중심인 구조다. 범용 서버,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및 웹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중심이다. GPU는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이다. AI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GPU와 가속기가 핵심이다. CPU는 주연산 장치라기보다 GPU 클러스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호스트 역할에 가깝다.
- 구조적 차이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설계까지 바꾼다. 전통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랙당 전력 밀도, 공랭 중심의 전통 냉각 방식, 범용 이더넷 네트워크, X86 서버 기반 소프트웨어 등이 보편적이다. AI 추론 데이터센터는 더 높은 랙당 전력 밀도, 액체냉각, GPU 간 고속 인터커넥트, HBM, DPU, 고성능 네트워킹 등을 요구한다. AI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CPU 자체의 호환성보다 GPU와의 원활한 연결, 전력 대비 성능, 메모리 대역폭, 랙스케일 통합 등이 더 중요하다.
- 기존 데이터센터의 AI화에서는 x86 CPU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AI를 더하면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검색, 벡터DB, 캐싱, 보안,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서버 등이 필요하다. 기존 x86 생태계와의 호환성이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일반 클라우드 컴퓨팅이 x86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서버 CPU 유닛 기준으로 인텔이 70% 안팎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능적인 측면과 GPU 성능 최적화를 위해 AMD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AMD는 컨퍼런스콜에서 서버 CPU 점유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 AMD 제품의 강점은 뛰어난 성능만이 아니다. 전성비, 코어 수, 메모리 대역폭 및 용량, 총소유비용 등 다방면에서 강점이 있다. AI 산업이 개화하면서 본격적으로 AMD는 서버 CPU 시장에서 인텔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AMD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CPU는 가속기보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강도가 낮은 편이다. AMD 측에 따르면 GPU 성능 최적화를 위해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EPYC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한다. 인텔이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불편한 요인일 것이다.
- 대규모 AI 추론용 데이터센터에서는 CPU의 역할이 전통 데이터센터와 다르다. 주연산 장치 역할보다 GPU와 AI 가속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레거시 x86과의 호환성이 아니다. 전성비, 메모리 대역폭, CPU와 GPU의 연결성, 랙 스케일 통합 등이다. 엔비디아의 그레이스나 베라 같은 CPU의 ISA는 Arm 기반이다. 엔비디아의 그레이스-블랙웰, 베라-루빈 계열은 CPU, GPU, 네트워킹, NVLink, 소프트웨어 등을 하나의 랙 단위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객은 CPU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검증된 AI 팩토리를 통째로 도입하게 된다. Arm 기반 CPU가 x86보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하이퍼스케일러의 방향도 비슷하다. AWS Graviton, Google Axion, Microsoft Cobalt처럼 자체 Arm 기반의 CPU를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하드웨어, 운영체제, 런타임, 워크로드 등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Arm 전환 장벽이 일반 기업보다 낮은 편이다. AI 추론이 클라우드 내부에서 커질수록 일부 x86 CPU 수요는 Arm 기반으로 흡수될 여지가 있다. Arm의 매출총이익률 9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력 시장이 모바일이라는 점이 평가절하 요인 중 하나였다. 추론 시장으로 기반 확장은 Arm의 밸류에이션 확장에 긍정적이다.
- 인공지능이 추론과 에이전트, 피지컬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CPU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키운 것은 인텔이지만 전통 데이터센터의 AI화는 AMD에게 더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AI 추론 랙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자체 인프라 구축은 Arm에게 더 우호적이다. 인텔은 단기적으로 서버 CPU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낮은 기대치, 턴어라운드 기대감 덕분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장기 구조적으론 x86에선 AMD와 경쟁해야 하고, AI 데이터센터의 증분 수요에서는 Arm/엔비디아 또는 Arm/하이퍼스케일러 등과 경쟁해야 한다. 이중 압박을 감안하면 CPU가 주목받는 국면에서도 AMD와 Arm을 더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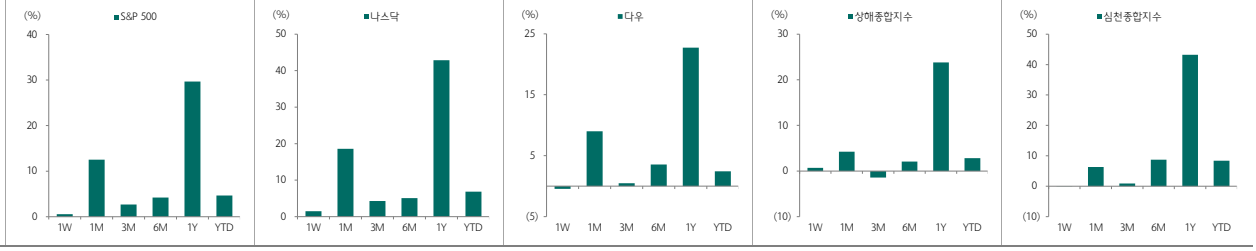
도표1. 인텔, AMD, Arm 주가 상승률(1D, YTD)



종가 기준일: 2026.04.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165.1	24,836.6	49,230.7	4,079.9	2,743.0
1W (%)	0.5	1.5	-0.4	0.7	-0.0



주) 4월 24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4월 20일~4월 24일) 리뷰: 성장주 강세 지속

- 지난주에도 성장주의 강세가 계속됐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지수 -0.4%, S&P 500 +0.5%, 나스닥 +1.5%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와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의 가격 변동률은 -0.5%, +0.4%였다.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주목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맞이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대표단은 25일 오전 파키스탄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7일 미국과 이란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란 정부측에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미국의 간담회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방문과 관련해선 파키스탄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부인하면서도 협상과 관련한 이란의 입장은 파키스탄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3국을 통한 간접 소통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시장참여자들은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선호했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주간 수익률은 +1.1%, -0.3%다. 이번 성장주 상승은 M7에 수급이 쏠린 것은 아니다. M7 ETF(MAGS)와 비M7 ETF(XMAG)는 각각 0.2%, 0.1% 상승했다. M7 중 테슬라와 메타의 주가가 부진했다. 각각 6.1%, 2% 하락했다. 그 외 M7 기업들은 상승했다(AMZN +5.4%, NVDA +3.3%, GOOGL +0.8%, MSFT +0.4%, AAPL +0.3%).
- 테슬라의 하락은 실적이다. 전기차 사업부와 에너지 및 스토리지 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은 29.1%, 39.5%였다. 이익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전기차 사업부는 보증 및 관세 관련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에너지도 관세 관련 일회성 환입이 있었다. 로보택시의 주행거리는 12월 이후 2.5배 이상 증가했지만, 무인 로보택시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보다 더디다.
- GICs Level 1 기준 상승 상위섹터는 에너지 +3.2%, 정보기술 +3.1% 다. 하락 상위는 헬스케어 -3.1%, 금융 -1.9% 등이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WTI는 14.3%, Brent는 14.6% 올랐다.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존스법 유예 조치는 90일 연장했다. 에너지 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정보기술에선 반도체의 강세가 인상적이다. 우리가 월간 자료인 미주 Pick 하나와 US Weekly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의 자본지출이 프로세서 기업부터 장비 기업까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반도체 ETF(SOXX)는 11% 올랐다. AI와 HPC가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까지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데이터센터 부문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 부문도 긍정적이었다. 인텔은 CPU들의 강세를 이끌었다. 인공지능이 추론시장으로 넘어가면서 CPU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AMD, Arm 등 CPU 기업들에게도 온기가 확산되기도 했다.
- 헬스케어가 약한 이유는 병원 관련주와 일라이 릴리 영향이다. HCA의 부진한 실적이 병원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훼손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의 약한 계절성 영향이다. 일라이 릴리는 파운다요의 데이터가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 이번 주(4월 27일~5월 1일) 프리뷰: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 금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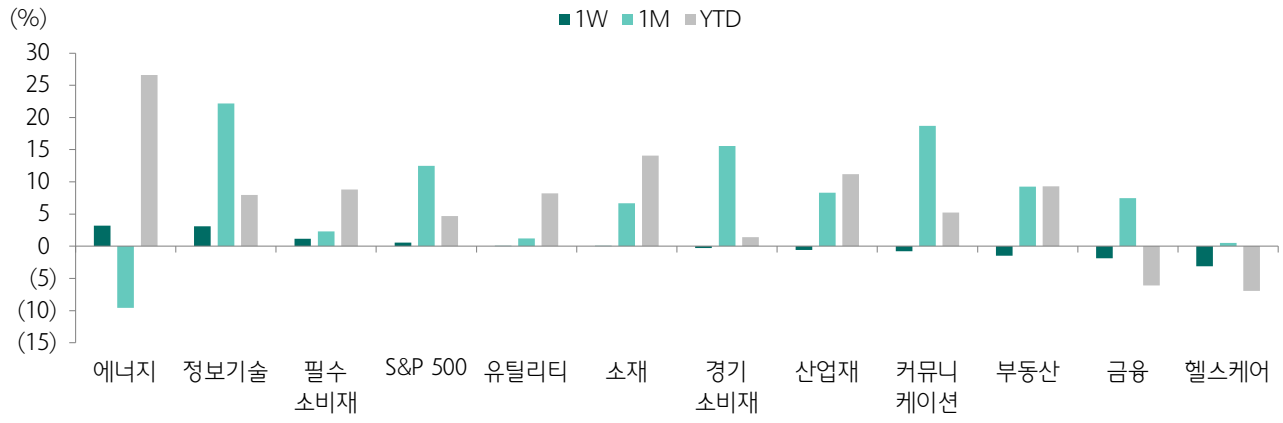
- 시장참여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결정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FOMC 이후 성명서와 파월의장의 연설을 통해 현재 연준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경제와 물가 수준을 가늠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증시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주말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다.
-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장 추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주요 모멘텀은 빅테크들의 적극적인 자본지출이다. 시장참여자들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장 여부를 중요하게 볼 것이다. 이번에도 공격적인 자본지출이 예상되며 투자심리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플랫폼 기업들(MSFT, META, AMZN, GOOGL)의 자본지출 합의 컨센서스는 6,126억 달러(YoY +61.6%)다. 연초 4,762억 달러 대비 28.7% 상향됐다. 기업별 연초 대비 자본지출 전망치가 상향된 정도는 알파벳 53.5%, 아마존 34.4%, 메타 11.6%, 마이크로소프트 11.9% 등이다. 자본지출 예상치를 재차 상향한다면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엔 긍정적일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다른 부분은 AI의 긍정적 영향이다. 지난 분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급락했다.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메타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확장 수혜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족한 GPU를 내부 할당에 쓰면서 Azure 실적 극대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실망했다. 메타의 경우 AI의 본질을 잘 살려 검색 광고가 양호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참여자들은 AI 효과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 FOMC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FedWatch의 금리 동결 전망은 99.9%다. 6월 금리 동결전망도 93.8%다. 시장참여자들이 FOMC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의견일 것이다. 관세와 지정학적 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해 연준이 보고 있는 데이터 변경 여부를 살필 것이다. 차기 연준의장 인준에 대한 불안도 다소 완화됐다는 점도 FOMC 결과의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일 것이다. 우리가 4월 미주 Pick하나에서 시장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로 캐빈 워시의 인준 여부였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입장을 선회했다. 캐빈 워시 후보자 인준에 동의했다. 5월 15일 캐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28일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54,750 건) / 레드북 YoY(이전치 +6.7%) / 2월 주택 가격 지수 YoY(이전치 +1.6%) / MoM(이전치 +0.1%) /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이전치 91.8), 29일 MBA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35%) / 3월 내구재 주문 MoM(예상치 +0.5%, 이전치 -1.4%) / 3월 주택 착공(이전치 1,386,000 건) / 3월 건축 허가(이전치 1,386,000 건)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1,925,000 배럴), 30일 FOMC 금리 결정(예상치 3.75%, 이전치 3.75%) / 1분기 GDP QoQ(이전치 0.5%) / 3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2.8%) / MoM(이전치 +0.4%) / 3월 핵심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 / MoM(이전치 +0.4%)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214,000 건) / 2월 미국 경기선행지수 MoM(이전치 -0.1%), 5월 1일 ISM 제조업 PMI(이전치 52.7)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금리결정 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7일 VZ / SCCO / CDNS / PSA / NUE / CLS / AMKR / RMBS, 28일 V / KO / NVS / TMUS / GLW / BKNG / SPGI / STX / SBUX / UPS / SHW / AMT / HLT / HOOD / ECL / MDLZ / GM / NXPI / OKE / XYL / AIT, 29일 GOOGL(GOOG) / MSFT / AMZN / META / ABBV / AZN / KLAC / APH / QCOM / EQIX / CVNA / GD / ORLY / EBAY / EME / NBIS / CTSH / HUM / BG / FTAI / SOFI / LII / GNRC, 30일 AAPL / LLY / MA / CAT / MRK / AMGN / SNDK / WDC / PH / MO / TT / PWR / ICE / MPWR / MNST / APD / LHX / AME / CARR / XEL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4/24)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165.1	0.8	0.5	12.5	2.7	4.2	29.7	4.7
나스닥	미국	24,836.6	1.6	1.5	18.6	4.3	5.1	42.9	6.9
다우	미국	49,230.7	-0.2	-0.4	9.0	0.5	3.5	22.7	2.4
STOXX600	유럽	610.7	-0.6	-2.5	6.1	-0.4	5.8	17.3	3.1
KOSPI	한국	6,565.5	1.4	5.6	20.7	29.1	62.4	157.8	55.8
KOSDAQ	한국	1,221.5	1.5	4.0	7.0	12.8	35.3	67.4	32.0
상해종합지수	중국	4,079.9	-0.3	0.7	4.2	-1.4	2.1	23.8	2.8
심천종합지수	중국	2,743.0	-0.6	-0.0	6.3	0.9	8.7	43.2	8.4
항테크지수	홍콩	25,978.1	0.2	-0.7	4.1	-4.2	-1.7	18.2	1.4
TOPIX	일본	3,715.2	-0.0	-1.6	1.8	4.3	11.7	41.4	9.0
니케이 225	일본	59,739.5	0.0	1.6	11.9	12.0	18.3	67.3	18.7
니프티 50	인도	23,898.0	-1.1	-1.9	4.7	-5.1	-8.0	-0.6	-8.5
Vietnam	베트남	1,853.3	-0.9	2.0	10.8	2.8	10.3	51.1	3.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4.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길어지며 높은 수준의 유가 지속
- 정보기술: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선호 강화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헬스케어: 병원주 및 일라이릴리의 약세. 병원주는 약한 호흡기 시즌으로 HCA의 부진한 실적이 투자심리를 약화. 일라이릴리는 시장 기대를 하회한 파운다요의 데이터 발표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4/20	**애플, 존 터너스 신임 CEO 선임** • 애플이 9월 1일부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SVP 존 터너스(50)를 신임 CEO로 선임하고, 팀 쿡은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첫 CEO 교체로, 터너스는 애플의 8번째 CEO가 됨. 터너스는 아이폰·맥·애플워치·비전프로 등 주요 하드웨어를 총괄해왔으며, 쿡과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여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할 예정.
4/22	**엔비디아·구글 클라우드, 에이전틱·물리적 AI 인프라 협력 확대** •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엔비디아와 구글 클라우드가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 엔비디아 베라 루빈 기반 A5X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공개했으며, 단일 사이트 최대 8만개·멀티사이트 최대 96만개 루빈 GPU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해 이전 세대 대비 추론 비용 최대 10배 절감 전망. 오픈AI는 구글 클라우드의 GB300·GB200 NVL72 시스템에서 ChatGPT 등 대규모 추론 워크로드를 운영 중. 구글 분산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GPU 기반 제미나이 모델 프리뷰도 공개됐으며,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AI 글로벌 기술 파트너 부문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
4/22	**마벨, 플라즈모닉스 기반 광통신 기업 폴라리톤 테크놀로지스 인수** • 마벨(MRVL)이 스위스 실리콘 포토닉스 기업 폴라리톤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다고 발표. 폴라리톤의 플라즈모닉스 기반 광변조 기술은 기존 실리콘 포토닉스 대비 고밀도·저전력 구현이 가능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광인터커넥트(3.2T 이상) 성능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전망. AI 워크로드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광통신 대역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마벨은 이번 인수로 전기광학·포토닉스·스위칭·커스텀 실리콘에 걸친 엔드투엔드 연결 포트폴리오를 강화. 거래 금액은 미공개.
4/22	**JP모건 "GPU 임대료·메모리 가격 동반 급등…AI 인프라 수요 지속"** • JP모건이 발표한 데이터센터 트래킹 보고서에 따르면 3월 GPU 임대 가격이 전 제품군에 걸쳐 상승. B200은 GPU당 시간당 5.47달러로 MoM +23.5%, H100은 2.64달러(+8.6%), A100은 1.48달러(+6.5%) 기록. B200·H100 가격 배율도 2월 1.82배에서 3월 2.07배로 확대되며 고성능 칩 수요 집중 현상이 심화. 메모리 가격도 1분기 DRAM 계약가격 QoQ +96%, NAND +88%로 급등. 2분기는 DRAM +61%, NAND +73%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이는 고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수요 약화와는 무관하며 YoY 기준으로는 각각 +421%, +362%에 달할 전망.
4/23	**메타, 전체 인력 10% 감축. AI 투자 확대 위한 구조조정** • 메타가 직원 약 8,000명을 해고하고 채용 예정 일자리 6,000개도 취소한다고 23일 발표. 다음 달 20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발표 직후 주가는 장중 2% 넘게 하락.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로 최소 1,150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으로, 이번 감원은 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효율화 차원으로 해석. 빅테크 전반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인력 재편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마이크로소프트(미국 내 인력 7% 감축), 아마존(1만6,000명), 블록(4,000명) 등도 잇따라 대규모 감원을 단행.
4/25	**백악관 기자단 만찬 중 총격 발생, 용의자 1명 체포** •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 금속탐지기 구역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참석자들이 긴급 대피.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을 포함한 모든 경호 대상자는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계속 진행을 원했으나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중단됐으며, 사건 약 40분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사함을 알림. 당국은 총격 경위·동기·단독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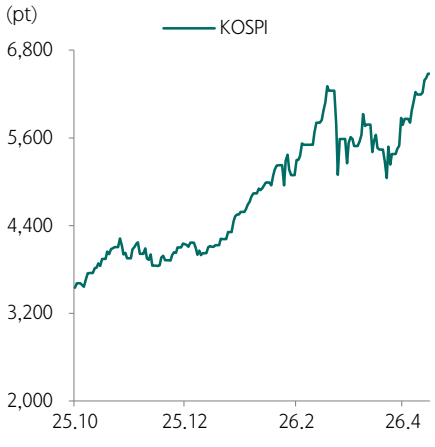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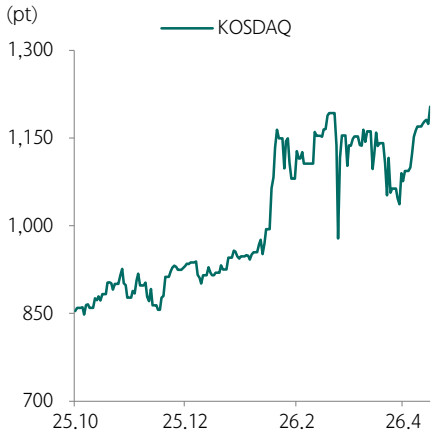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PRGS	NKE MKC FDS TE	CAG LW	AYI	
6	**7**	**8**	**9**	**10**
	LEVI	DAL STZ RPM APLD	PGR	BLK
13	**14**	**15**	**16**	**17**
GS FAST UNTY	JPM JNJ WFC C BLK ACI KMX	ASML BAC MS PGR PNC JBHT	TSM NFLX BX FCX PEP ABT SCHW PLD AA SNAP	TFC RF
20	**21**	**22**	**23**	**24**
SCHW RIO INFY STLD ZION CLF ALK	GE UNH RTX VZ ISRG LMT DHR NOC UAL	TSLA LRCX PM GEV IBM TXN T BA VRT CME NOW KMI ELV	AMZN KLAC CAT INTC SAP AXP NEE LMT HON NEM WDC FSLR AAL	PG XOM CVX ABBV HCA SLB NVT MOGA
27	**28**	**29**	**30**	
VZ SCCO CDNS PSA NUE CLS AMKR RMBS	V KO BKNG HOOD MDLZ SBUX GM OKE	GOOGL MSFT AMZN META ABBV AZN KLAC QCOM EQIX CVNA APH	AAPL LLY MA CAT MRK AMGN SNDK WDC PH PWR TT 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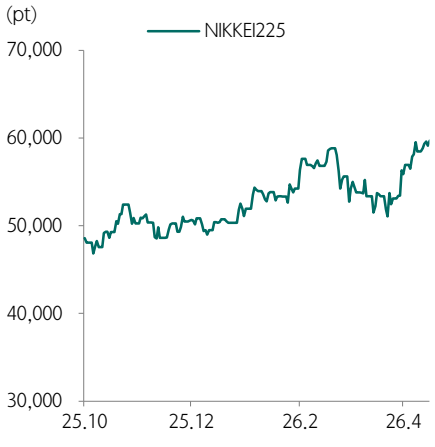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4/27(월)	•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이전 3.936%) • 4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예상 91.8, 이전 89.4)
4/28(화)	• 미국 FOMC(~29) *금리결정 4/30 03:00 KST
4/29(수)	•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이전 4.255%) • 원유재고 (이전 1.925M)
4/30(목)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 FOMC 기자회견 (03:30 KST) • 1분기 GDP(P) (예상 2.2%, 이전 0.5%)
5/1(금)	• 4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예상 53.2, 이전 52.7)

주요 지수 추이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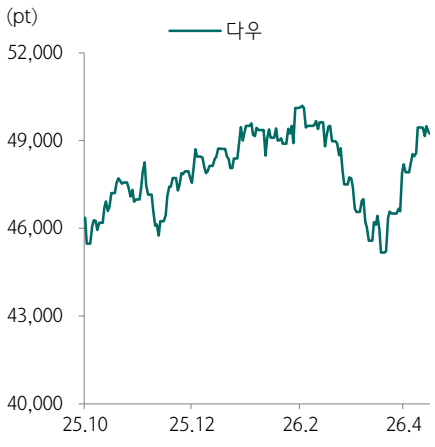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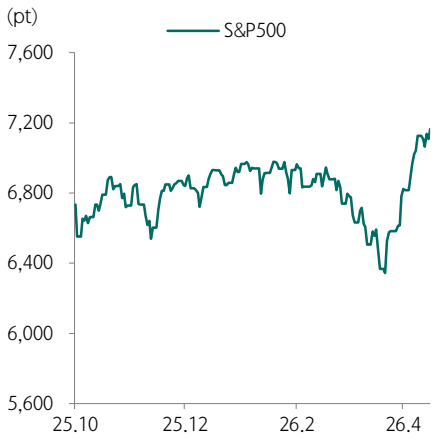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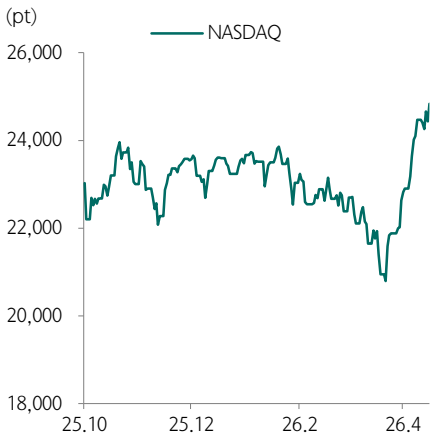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10
25.12
26.2
26.4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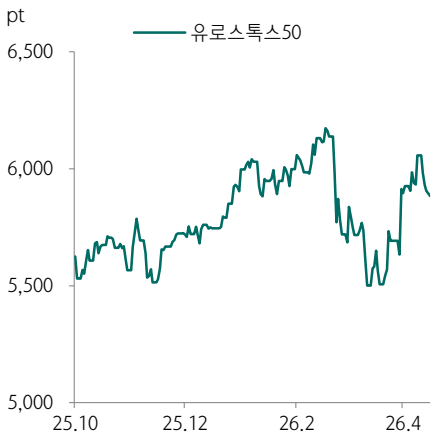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10
25.12
26.2
26.4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10
25.12
26.2
26.4


(pt)
S&P500
7,6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10
25.12
26.2
26.4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10
25.12
26.2
26.4

VIX
36
27
18
9
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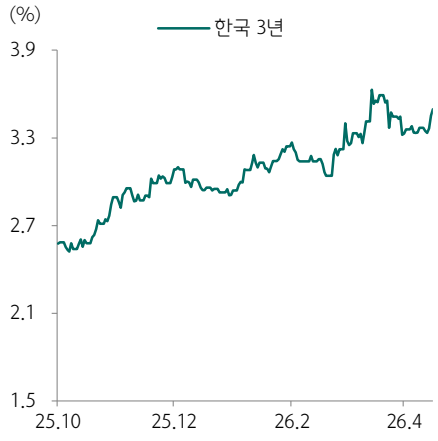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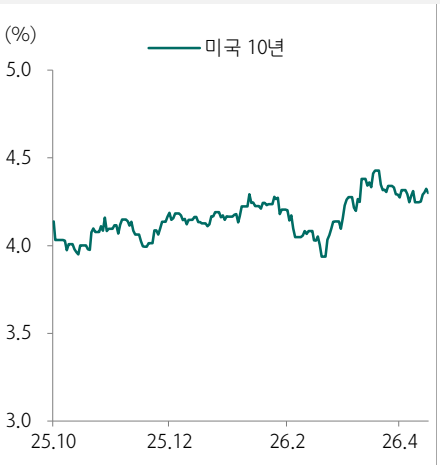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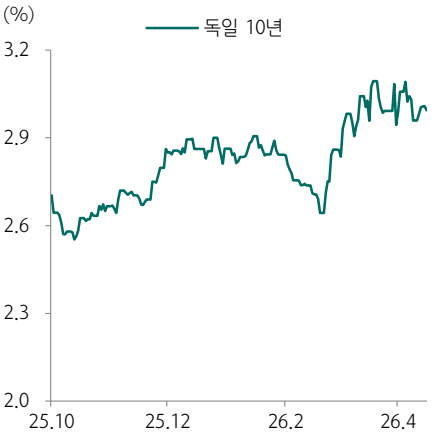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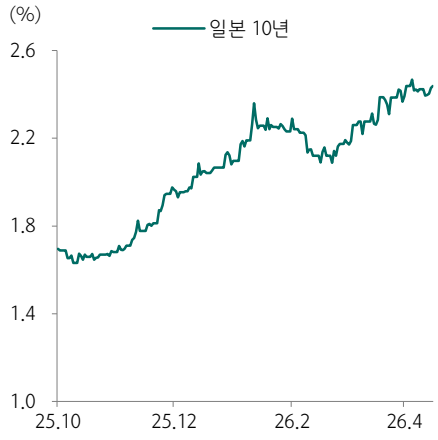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원/엔
10.1
9.7
9.3
8.9
8.5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위안/달러
7.4
7.2
7.0
6.8
6.6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10
25.12
26.2
26.4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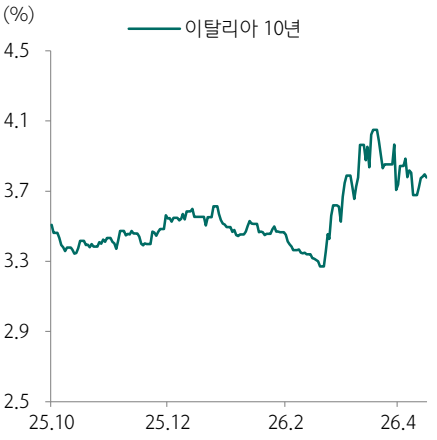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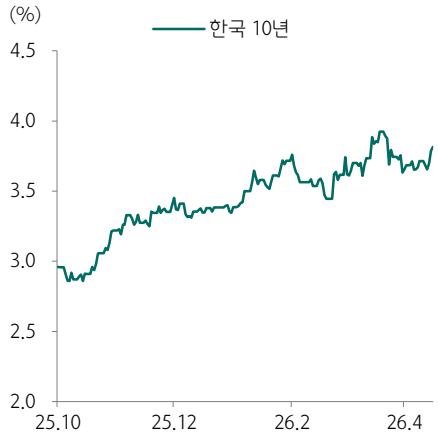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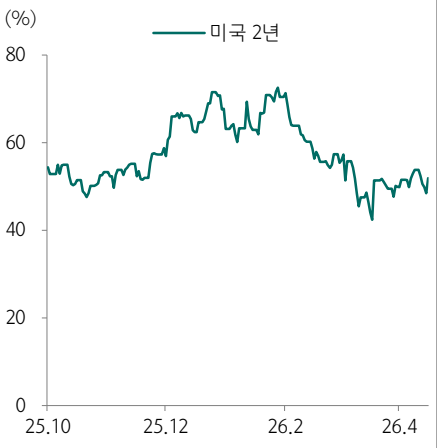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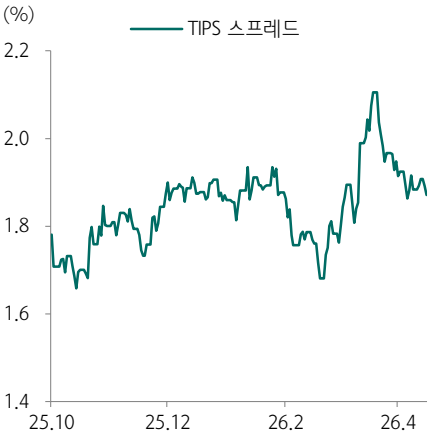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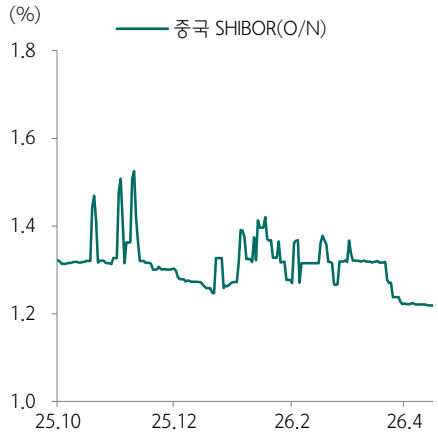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10
25.12
26.2
26.4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10
25.12
26.2
26.4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10
25.12
26.2
26.4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10
25.12
26.2
26.4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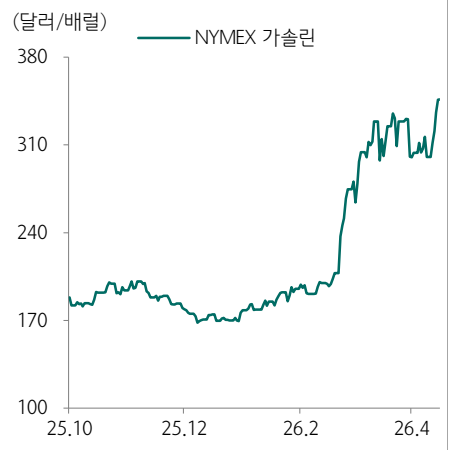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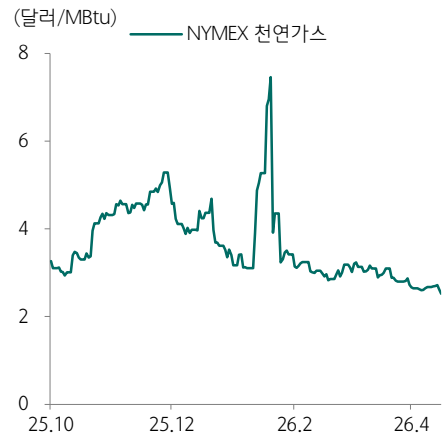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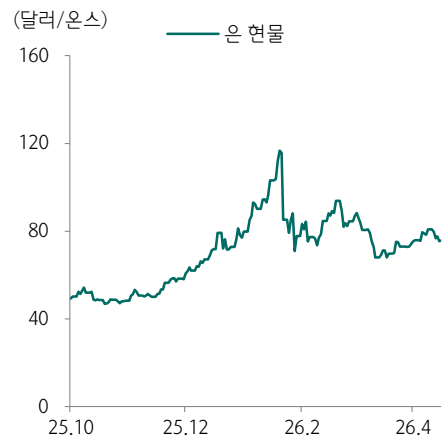
(달러/배럴)
두바이유
160
130
100
7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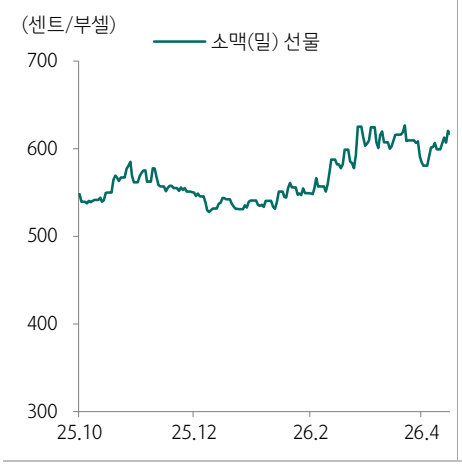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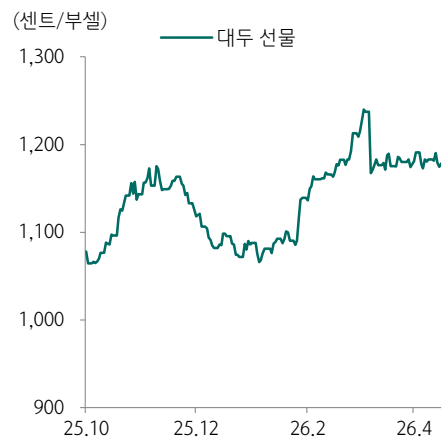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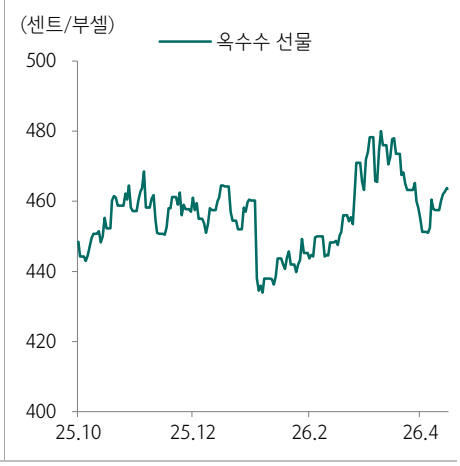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10
25.12
26.2
26.4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10
25.12
26.2
26.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